

오키나와 오고에(御後繪)와 조선시대 불교회화의 비교*

김 용 의**

(e-mail : yukim@jnu.ac.kr)

目 次

1. 오키나와의 오고에(御後繪)
 2. 오고에(御後繪)의 문헌기록 및 전승과정
 3. 조선시대 류큐로의 불교 전파의 역사
 4. 오고에(御後繪)와 조선시대 불화의 비교
 5. 오고에(御後繪)와 류큐 국왕의 불교적 신격화
-

1. 오키나와의 오고에(御後繪)

오키나와에는 ‘오고에(御後繪)’라고 부르는 그림이 전해진다. 오고에란 이른바 류큐처분(琉球處分, 1872~1879)으로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되기 이전의 류큐왕조 시대에 국왕의 사후에 그려진 국왕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고에는 오키나와전(沖繩戰, 1945)을 거치면서 실물이 분실되어 현재 그 행방을 알 수가 없다. 단지 마지키나 안코(眞境名安興)의 『오키나와 천년사(沖繩一千年史)』(1923)에 3장, 가마쿠라 요시타로(鎌倉芳太郎)의 『오키나와문화의 유보(沖繩文化の遺寶)』(1982)에 10장의 오고에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화가이자 오고에 연구자 사토 후미히코(佐藤文彦)는 1993년부터 『오키나와문화의 유보』에 수록된 사진을 바탕으로 하여 10장의 오고에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5695)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문화학 전공

를 직접 그려서 재현하였다.¹⁾ 사토 후미히코가 재현한 오고에는 그의 저서 『요원한 오고에(遙かなる御後繪)』(2003)에 연구 논문과 함께 수록되었다. 오고에는 사토 후미히코의 재현을 계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오고에에 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탓에 앞으로 밝혀야 할 연구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선행연구로는 앞서 소개한 연구 이외에, 히가 초켄(比嘉朝健)의 「상후작가 오고에에 관해서(尙侯爵家御後繪に就いて)」라는 선구적인 논문이 있다.²⁾ 히가 초켄은 마지키나 안코와 함께 상후작의 저택에서 두루마리 형식의 오고에 실물을 직접 본 적이 있으며,³⁾ 이 일을 계기로 류큐 화가의 가보(家譜)를 자료로 하여 오고에 제작자의 활동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히라카와 노부유키(平川信幸)가 오고에의 형식에 관해서 중국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⁴⁾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오고에의 회화 양식이 조선시대의 불교회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의 오고에 연구는 주로 오고에의 회화 양식에 중국회화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에 집중되었다.⁵⁾ 근대 이전에는 중국 국왕이 류큐 국왕을 책봉했던 양국의 오랜 역사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오고에의 성립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중국회화의 영향이 있었으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고에는 중국회화의 영향만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오고에의 전체적인 구도에 있어서 조선시대 불교회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근대 이전의 오키나와와 조선의 문헌에 기록된 양국의 빈번한 문물교류 특히 불교 전파의 역사가 뒷받침한다. 이 글은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이다.

오고에는 크게 나누어 중앙에 좌정한 국왕, 국왕 좌우에 시립한 신하들, 국왕의 배경 그림으로 구성된다. 특히 그림 중앙에 위치한 국왕의 모습을 좌우에 시립한 신하들에 비해서 유난히 크게 강조하여 그렸다는 특징이 있다. 중앙의 국왕을 두드러지게 크게 그린 것은 류큐왕조 시대 국왕의 신격화 및 이를 통한 왕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화 양식은 조선시대 불교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화적 양식이다. 예를 들면 지장

1) 오고에 재현의 동기 및 과정에 관해서는 佐藤文彦, 『遙かなる御後繪』, 作品社, 2003, 16~17쪽 및 32~36쪽 참조.

2) 이 글은 『沖繩タイムス』(1925.11.1~11.12)에 연재되었다. 본고에서는 佐藤文彦, 앞의 책, 119~152쪽에 수록된 글을 참고하였다.

3) 比嘉朝健, 앞의 글, 121쪽에 당시의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4) 平川信幸, 「御後繪とその形式について」『芸術學論叢』14, 別府大學, 2001.

5) 예를 들면 앞서 소개한 佐藤文彦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佐藤文彦도 오고에와 조선의 회화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은 느끼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점까지는 논지를 전개하지 못하였다. 佐藤文彦, 앞의 책, 81~83쪽 참조.

탱(地藏幀), 시왕탱(十王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회화 기법이다.

이 글에서는 앞서 제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의 『류큐국 유래기(琉球國由來記)』(1713), 『구양(球陽)』(1745) 등의 문헌 기록, 이에 대응하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오고에와 조선시대 불교회화의 표현 양식을 전체적인 구도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오고에(御後繪)의 문헌기록 및 전승과정

오고에는 현재 모두 10장의 그림이 알려져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가마쿠라 요시타로의 『오키나와 문화의 유보』(1982)에 사진의 형태로 남아 있다. 오고에가 남아있는 왕들은 모두 류큐왕조사에서 이른바 제이상씨(第二尙氏)에 속하는 왕들이다.⁶⁾ 구체적으로 제1대 상원(尙圓), 제3대 상진(尙眞), 제5대 상원(尙元), 제7대 상녕(尙寧), 제8대 상풍(尙豊), 제11대 상정(尙貞), 제13대 상경(尙敬), 제14대 상목(尙穆), 제17대 상호(尙灑), 제18대 상육(尙育)의 오고에 사진이 전해진다.

다음의 <표>는 현재 그 존재가 확인된 제1대 상원에서 제18대 상육에 이르기까지의 오고에 목록이다. <표>는 마지키나 안코(1923), 히가 초켄(1925), 가마쿠라 요시타로(1982), 사토 후미히코(2003)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필자가 작성하였다.⁷⁾

<표> 현재 확인된 오고에의 목록 및 전승 과정

국왕	재위 기간	제작자	真境名安興 (1923)	鎌倉芳太郎 (1982)	佐藤文彦 (2003)	비고

6) 류큐의 왕조는 크게 제일상씨(第一尙氏) 왕통과 제이상씨(第二尙氏) 왕통으로 나뉜다. 제일상씨는 상사소왕(尙思紹王)을 시조로 하여 모두 7대(1406~1469)에 걸쳐 왕조가 이어졌다. 제이상씨는 제일상씨 시대 상태구왕(尙泰久王)의 증신이었던 가나마루(金丸)가 왕위에 오른 데서 시작된다. 이 가나마루가 바로 제이상씨 왕조를 시작한 제1대 상원왕이다. 제이상씨는 모두 19대(1469~1879)에 걸쳐 왕조가 이어졌다. 특히 제3대 상진왕 시대에 지방의 호족세력 아지(按司) 등을 슈리(首里)에 거주시켜 중앙집권화를 꾀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진공무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 널리 교역을 하는 등 왕조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오키나와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정리한 다음의 저서를 참조. 新城俊昭, 『琉球·沖繩史-沖繩をよく知るための歴史教科書』, 東洋企画, 2008.

7) 참고로 鎌倉芳太郎(1982)에는 국왕의 초상화 이외에도 尙恭浦添王子朝良公(原畵), 尙恭浦添王子朝良公(改畵), 尙純公의 초상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국왕은 아니지만 왕족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오고에 연구에 참고가 된다.

1대 尙円	1470~1476	불명	수록	수록	재현	중앙에 국왕이 좌정. 좌우에 8명씩 신하를 배치
3대 尙真	1477~1526	불명		수록	재현	상동
5대 尙元	1556~1572	불명		수록	재현	상동
7대 尙寧	1589~1620	불명	수록	수록	재현	상동
8대 尙豊	1621~1640	불명(自了?)		수록	재현	상동
11대 尙貞	1669~1709	呉師虔山口宗季		수록	재현	신하의 수가 좌우 7명씩으로 줄고 국왕을 더욱 크게 그림. 향로가 등장
13대 尙敬	1713~1751	殷元良座間味庸昌	수록	수록	재현	상동
14대 尙穆	1752~1794	向元瑚小橋川朝安		수록	재현	상동
17대 尙灝	1804~1834	毛長禧佐渡山安健		수록	재현	상동
18대 尙育	1835~1847	毛長禧佐渡山安健 ?		수록	재현	상동

제이상씨는 모두 19대에 걸쳐서 왕조가 이어졌다. 따라서 현재 제2대, 제4대, 제6대, 제9대, 제10대, 제12대, 제15대, 제16대, 제19대 왕의 오고에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류큐왕조 시대에 과연 오고에가 몇 장이나 제작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사진으로 전하는 오고에는 모두 10장인데, 이는 가마쿠라 요시타로가 촬영할 당시에 10장밖에 존재하지 않았는지, 혹은 가마쿠라 요시타로가 10장만을 촬영하였는지 불투명하다.⁸⁾ 일찍이 마지키나 안코는 오고에가 분실되기 이전에 직접 실물을 보았다고 밝히고 있는데,⁹⁾ 히라카와 노부유키의 집계에 의하면 그가 본 것은 모두 17장이었다.¹⁰⁾ 따라서 가마쿠라 요시타로의 사진에는 적어도 7장의 오고에가 결락된 셈이다.

오고에의 역사적인 경위에 관해서는 오키나와의 문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

8) 平川信幸, 앞의 글, 48쪽.

9) 眞境名安典, 『笑古漫談』『眞境名安典全集』第3卷, 琉球新報社, 1993, 197쪽. 여기서 ‘笑古’는 眞境名安典의 호이다.

10) 平川信幸, 앞의 글, 49~50쪽.

다. 이들 기록에는 ‘尊像’, ‘壽像’, ‘壽影’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먼저 『류큐국 유래기』(1713)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사례 1>

사자굴(獅子窟)·어조당(御照堂)은 만력(萬曆) 연간에 수리를 행했다. 당초 판자를 깔았으나 지붕이 썩고 기둥도 기울었다. 본격적으로 수리를 하지 못해서 거적으로 지붕을 덮었으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해에는 자주 비가 새서 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순치 9년에 수리할 때에는 지붕을 기와로 덮었다. 강희(康熙) 15년에 다시 수리를 하였지만, 그 후 십 수 년이 지난 계유년, 비가 내리면 비가 새서 양쪽 묘(廟)가 마를 날이 없었다. 그 때문에 수리를 하게 되었다. 솜씨가 뛰어난 화공을 골라서 세조(世祖)의 존상(尊像)에 색을 칠하고 반룡(蟠龍)·무학(舞鶴)을 그려 넣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꾸몄다.(『琉球國由來記』 권10)¹¹⁾

<사례 1>은 류큐왕조의 종묘인 원각사 어조당(御照堂)의 수리 내력에 관한 기록이다. 이 기록에 나오는 ‘尊像’이 바로 오고에이다. 순치 9년(1652), 강희 5년(1676)에 수리를 하였으나 완전하지 못했으므로 계유년(1693)에 다시 수리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솜씨가 뛰어난 화공을 골라서 역대 선왕들의 존상에 새로 색을 칠하고 반룡과 무학을 그려 넣어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구양』에는 오고에에 관한 기록이 더욱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사례 2>

전하기를 샷토(察度)의 수영(壽影)은 말길만수사(末吉萬壽寺)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절은 만력(萬曆) 38년 경술 9월 22일에 실화로 소실되었다.(『구양』 권1)¹²⁾

11) 外間守善·波照間永吉 編著, 『定本 琉球國由來記』, 角川書店, 1997, 176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弘治七甲寅之間、始構宗廟於方丈右、而謂之東御照堂也。以後、至于隆慶五辛未、併建而謂之西御照堂也。復至於萬曆年間、重修而如故也。以來不遑修復。始葺雖以板、薨宇之腐朽、柱梁之傾圮、蓋岌々乎、不可復支也。故基中間、以苫覆之也。當疾風暴雨之時、交浸歲久也。視者不忍視之。以故順治九壬辰之間、修而蓋之、以陶瓦也。以其儷廉而功省也。又逮於康熙十五丙辰、雖修之、歷于十有餘年癸酉、而雨則兩廟沛然、等不乾也。繇之修復之、次選画工之得於妙手者、重潤色世祖尊像也。繼而蟠龍舞鶴、尽其巧美

12) 球陽研究會編, 『球陽』, 角川書店, 1974, 107쪽. 원래 『구양』은 한문으로 기록되었다. 이 텍스트는 球陽研究會에서 여러 판본을 참고로 하여 읽기 쉬운 문장(讀み下し)으로 구성한 텍스트이다. 이 부분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察度の壽影は伝へて末吉萬壽寺に在りしが、萬曆三十八年の庚戌九月二十二日、寺の失火に因りて燒滅す。

<사례 2>는 샷토(察度)의 수영(壽影)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 나오는 ‘壽影’이 바로 오늘날 일컫는 오고에이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샷토(1321~1395)는 류큐 왕조의 국왕 중의 한 사람이다.¹³⁾ 샷토라는 왕의 수영이 말길만수사(末吉萬壽寺)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실화로 인해서 절이 불타고 말았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을 보면 이미 이 시대에 국왕의 초상화를 그려서 절에 안치하는 관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3>

5년, 비로소 여러 선왕의 수상(壽像)을 족자로 만들다.

원래 이것은 조당(照堂)의 정면 벽에 그려서 모셨다. 여러 해가 지나자 단청이 퇴색하였다. 게다가 불경스럽게 선왕을 모독할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새로 모사하여 비로소 족자를 만들었다. (『구양』 권10)¹⁴⁾

『구양』 권10은 상경왕(尙敬王, 재위 1713~1751) 시대의 기록이다. 따라서 이 기록에 적힌 5년이란 상경왕 5년을 가리킨다. <사례 3>은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다. 기록을 통해서 상경왕 시대 이전에는 왕의 수상(壽像), 즉 오고에를 조당(照堂) 정면의 벽에 그렸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벽화 형식으로 그렸던 셈이다. <사례 2>의 기록에서는 국왕의 초상화를 어떤 형식으로 그려서 어디에 안치하였는지 알 수 없었으나, <사례 3>을 통해서 조당에 벽화 형식으로 그려서 안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조당(照堂)이란 어조당(御照堂)을 가리킨다. 어조당은 원각사 대전 옆에 붙여서 세운 류큐왕조의 종묘이다. <사례 3>에 의하면 원래 종묘에 해당하는 어조당에 벽화 형식으로 국왕의 초상화를 그렸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단청이 퇴색하여 국왕을 모독할 우려가 있으므로 족자 형식으로 모사하여 안치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오고에가 벽화 형식에서 족자 형식으로 바뀐 셈이다. 다른 기록을 참고하기로 한다.

<사례 4>

9년, 원각사(円覺寺) 대전이 화재를 겪었다. 정월 초일 축시에 실화하여 원각사 대전이 불로 손실되었다. 그렇지만 조당(照堂), 불전(仏殿), 산문(山門)은 다행히 화재를 면했다. 이때의 주지 각옹(覺翁)이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 잘못하여 화재를 일으켰다. 그 화재를 당했어도 오로지 자기 집만을 들어내고 선

13) 『球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현재의 기노완 시(宜野灣市) 출신으로 영조왕통(英祖王統)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다. 신호(神号)는 우후마모노(大眞物)이다.

14) 球陽研究會編, 앞의 책, 257쪽.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五年、始めて諸先王の壽像を以て御掛物と爲す。原、奉みて之れを照堂正面の壁に畫く。年を歴て、丹青霉變す。且不恭の瀆有るに似たり。是に于て改めて寫し、始めて御掛物と爲す。(卷十)

왕의 신주(神主) 및 수영(壽影)을 돌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상청왕(尙淸王)의 신위 및 상풍왕(尙豊王), 상현왕(尙賢王)의 수영이 불탔다. 이 때문에 각옹은 야에야마(八重山)로, 그리고 조당(照堂)의 승려는 구메산(久米山)으로 유배되고, 정(亭)의 승려는 조태사(照泰寺)로 내보낸 지가 300일이 되었다.(『구양』 권 11)¹⁵⁾

이 기록에 적힌 9년이란 상경왕 9년을 의미한다. 성경왕 9년 정월 초하루에 원각사의 대전이 불탔으며 이로 인해서 상청왕(尙淸王)의 신위 및 상풍왕(尙豊王), 상현왕(尙賢王)의 수영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기록이다. <사례 3>의 기록과 대조해 볼 때에 <사례 4>에 나오는 수영은 족자 형식의 오고에였음이 분명하다. 족자 형식의 오고에가 불에 타버리자, 그 책임을 지고 원각사의 주지 각옹이 남쪽의 야에야마(八重山)로, 그리고 어조당을 담당했던 승려는 구메산(久米山)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구양』 권11에는 앞의 <사례 4>의 기록에 이어서 원각사에 어떤 왕들의 신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사례 5>

원래 원각사(圓覺寺) 대전은 중간에 불상을 모시고 좌우 두 칸에 선왕 7세 이하의 신주를 봉안하였다. 또한 대전 앞의 우측에 곁채를 두 채 지어서 신전으로 삼았다. 그 한 채를 상어조당(上御照堂)이라 칭하고 또 한 채를 하어조당(下御照堂)이라고 칭했다. 당은 각각 세 칸 세 감실(龕室)이 있었다. 상당의 중간 감실은 시조 상원(上元) 왼쪽 감실은 2세 상진(尙眞), 오른쪽 감실은 3세 상청(尙淸)을 모셨다. 하당의 중간 감실은 4세 상원(尙元), 왼쪽 감실은 5세 상영(尙永), 오른쪽 감실은 6세 상녕(尙寧)을 모셨다. 대전 좌우의 두 칸에 이르러서는 왼쪽 칸은 오른쪽을 상위로 삼아서 제1위는 7세 상풍(尙), 제2위는 9세 상질(尙質), 제3위는 11세 상순(尙純)을 모셨다. 오른쪽 칸은 왼쪽을 상위로 삼아서 제1위는 8세 상현(尙賢), 제2위는 10세 상정(尙貞), 제3위는 12세 상익(尙益)을 모셨다.(『구양』 권11)¹⁶⁾

15) 球陽研究會編, 앞의 책, 264쪽.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九年、円覺寺大殿回祿す。正月初一丑時、火を失して、円覺寺大殿を焼損す。而して照堂・仏殿・山門は幸に火災を免る。時に住僧覺翁、小心有ること無し。謬りて火災を起し、其の火災に当りても、專一に自己の貨物を担出し、先王の神主及び壽影を顧みず。而して今尙淸王の神位並びに尙豊王・尙賢王の壽影を燒損す。是れに由りて、覺翁は八重山に流し、照堂僧は、久米山に流し、亭僧は、照泰寺に放在すること三百日なり。

16) 球陽研究會編, 앞의 책, 264~265쪽. 전반부의 일본어 원문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原、円覺寺大殿は、中間に仏を供し、左右二間に先王七世以下の神主を奉安す。又大殿前右列に二廡を設けて神殿と爲し、一を上御照堂と稱し、一を下御照堂と稱す。堂は各三間三龕あり。上堂の中龕は始祖諱は元、左龕は二世諱は眞、右龕は三世諱は淸。下堂の中龕は四世諱は元、左龕は五世諱は永、右龕は六世諱は寧。

<사례 5>의 기록을 정리하면, 원각사 대전의 중앙에 불상을 모시고, 불상 가까운 곳부터 순서대로 좌우 번갈아가며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국왕의 신위를 모셨다. 그리고 대전 우측에는 각각 상어조당과 하어조당이라고 부르는 곁채를 두 채 지어서 1대부터 6대까지의 신위를 모셨다. <사례 5>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원각사 대전 및 어조당에 신위만을 모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 검토한 <사례 2>, <사례 3>, 그리고 <사례 4> 기록을 함께 참고하면, 신위 뒤에 국왕의 초상화, 즉 오고에도 함께 모셨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각각의 국왕의 신위 뒤에 이에 해당하는 국왕의 오고에가 걸려 있었다. 이 광경은 마치 한국의 사찰에서 불상 뒤에 그 불상과 관련된 탕화를 걸어두고 예불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몇 년 후에 원각사 대전의 중앙에 안치되었던 불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대전을 종묘로 삼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 『구양』 권11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사례 6>

16년, 원각사 대전을 개수하여 왕의 종묘로 삼았다.

원래 원각사는 불상을 대전에 봉안하였다. 그리고 대전 옆에 별도로 작은 당(堂) 두 채를 세워서 이를 어조당(御照堂)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선왕의 신주를 모셨다. 이번에 새로 대전을 왕의 종묘로 삼았다. 어조당 한 채를 작은 당으로 개수하여 불상을 봉안하고 이름 붙이기를 사자굴(獅子窟)이라고 불렀다. 다른 한 채는 작은 당으로 개수하여 법당의 승려를 옮겨 살게 하였다. 그 나머지는 구관에 따라서 감히 새로 고치지 않았다.(『球陽』 권11)¹⁷⁾

<사례 6>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원각사 대전 중앙에 봉안되었던 불상을 곁채에 해당하는 어조당으로 옮기고, 원각사 대전 그 자체를 종묘로 삼았다. 이는 종묘로서의 원각사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 조치에 따라 종묘의 위상이 더욱 올라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류큐왕조에서 종묘에 모셔진 역대 선왕들에 대한 숭경을 더욱 강화하고 중요하게 여겼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류큐왕조의 왕권 강화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역대 선왕들에 대한 숭경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원각사 대전을 종

17) 球陽研究會編, 앞의 책, 276쪽.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十六年、円覺寺大殿、改めて王の宗廟と爲す。

円覺寺は、素、仏像を大殿に奉ず。而して大殿の側に別に小堂二座を構へ、名づけて御照堂と曰ひ、以て先生の神主を奉ず。今番改めて、大殿を以て王の宗廟と爲し、其の照堂一座を將て、小堂に改修して以て仏像を奉じ、名づけて獅子窟と曰ふ。次の一座は小堂に改めて構へて、法堂僧を移栖せしむ。其の余は旧貫に仍りて敢へて改めず。

묘로 삼았던 것이다. 실제로 『구양』 권11에는 앞의 <사례 5>의 기록에 이어서, 상경왕 10년에 왕자를 비롯하여 일반 서민들까지도 종묘에 참배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¹⁸⁾

3. 조선시대 류큐로의 불교 전파의 역사

오키나와의 오고에와 조선시대 불교회화와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과 류큐 사이의 문화교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국 사이의 불교교류 및 전파 양상에 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조선시대 양국 사이에는 빈번한 문물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양국의 문헌에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에 류큐 관련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¹⁹⁾ 특히 조선에서 류큐로 불교 문물이 많이 전달되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양국의 기록을 확인하기로 한다.

<사례 7>

원래 이 곳의 유래는 이러하다. 홍치(弘治) 15년에 조선국왕이 방책장경(方冊藏經)을 류큐로 보내왔다. 그리하여 이 땅을 점쳐 고르고 윤장(輪藏)을 세워서 방책장경을 보관하였다.(『류큐국 유래기』 권10)²⁰⁾

<사례 7>은 『류큐국 유래기』(1713) 중에서 변재천녀당(辯才天女堂)을 세우게 된 유래에 관한 기록이다. 조선에서 국왕이 류큐로 대장경을 보냈는데, 그

18) 球陽研究會編, 앞의 책, 276쪽.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부터 정월 초이틀, 7월 14일, 왕의 친척들만이 원각묘(圓覺廟)로 들어가서 선왕을 배알하였다. 그렇지만 중신(衆臣)은 일찍이 아직 배알하지 못했다. ... (중략) ... 이 해에 왕이 비로소 왕자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관을 갖추고 원각묘에 참배하여 공경하게 예를 갖추도록 하였다.

19)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 본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에서 검색어로 '琉球'를 입력하면 총 865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열람일 : 2013. 11. 20)

20) 外間守善·波照間永吉編, 『琉球國由來記』, 角川書店, 1997, 177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原、夫此地者、弘治十五年壬戌之間、自從朝鮮國王、獻方冊藏經於吾朝也。始卜此地、創輪藏以收之也。 참고로 이 기록 외에도 『琉球國由來記』 권10에 대장경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天德山門覺寺記附法堂 方冊藏經來朝記

私聞。吾朝會航海、屢通諸國也。... (중략) ... 當此時也、(缺)朝鮮國王、亦匪翹布仁政於海內、歸心於佛乘、要使率土浜、皆得窺佛祖之秘謀也。基善利懿哉也。恭惟、(缺)兩君之志願、如合符節也。而不時矣。乘此志願而弘治十五壬戌之間、朝鮮國王、獻方冊藏經於吾朝也。遇此希遭之緣而、(缺)上、歡甚矣。乃卜地、以鑿池甃石、以築址架石橋、創輪藏以收焉。爾來經歲月者一百八年。至于曆三十七己酉、經藏既老朽矣。重欲修之覆苔移經也。(강조 필자)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변재천녀당을 지었다는 기록이다. 이 점에 관해서 『구양』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례 8>

7년, 조선왕이 방책장경(方冊藏經)을 보내다.

왕이 사신을 조선으로 보내어 앵무(鸚鵡), 공작 등을 진정(進呈)하였다. 사신이 돌아올 때에 조선왕 이유(李瑀)가 방책장경을 맡기고, 지니고 돌아가서 왕에게 드리도록 했다.(『구양』 권2)²¹⁾

여기서 7년이란 상덕왕(尙德王, 재위 1460~1469) 7년을 의미한다. 상덕왕은 제일상씨 왕통의 제7대 국왕으로 제일상씨 왕통의 마지막 국왕이다.²²⁾ <사례 8>은 당시 조선과 류큐 사이의 문물교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기록 중의 하나이다. 류큐의 왕이 앵무, 공작 등을 조선왕에게 보내자 그 답례로 조선왕이 방책장경, 즉 대장경을 류큐로 보냈다는 기록이다. 오키나와의 『구양』이나 『류구국 유래기』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대장경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9>

근정문(勤政門)에 입어하여 조참(朝參)을 받았다. 유구국(琉球國) 사자(使者)인 왜승(倭僧) 도안(道安)이 반열(班列)을 따라 국왕(國王) 상태구(尙泰久)의 서계(書契)를 올리고 이어서 화석(花錫)·소목(蘇木) 각각 1천 근(觔)을 바쳤다. 임금(王)이 말하기를, “본국에서 표류(漂流)한 인구(人口)를 두 차례나 쇄환(刷還)하니, 매우 기쁘다.” 하니, 도안(道安)이 아뢰기를, “《장경(藏經)》을 얻어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였고,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다.(『세조실록』 권2, 세조1년 8월 25일)²³⁾ [강조 필자]

<사례 10>

유구국(琉球國)의 중산왕(中山王)이 보수고(普須古)·채경(蔡璟) 등을 보내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고, 본국(本國)에 표류(漂流)한 인구(人口)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제후로 봉하여 각각 한 방면을 진압하고, …(중략)… <저희 나라에는> 《장경(莊經)》이 희소(稀少)하므로 지난번에 사람을 보내어 구하여 청하였는데, 성상께서 내려 주시니 감격(感激)하여 나라에 이르러 깨우침을 열어 주고, 대길상(大吉祥)의 서광(瑞光)을 내리어 주었습

21) 球陽研究會編, 앞의 책, 132쪽.

22) 상씨왕통에 관해서는 이 글의 각주 6번을 참조.

23) 이하 『조선왕조실록』의 본문 인용은 『조선왕조실록』 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에 의한다. (열람일 : 2013.11.20)

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어서 천계선사(天界禪寺)를 건립하였으나, 경전(經典)이 없다고 말하므로, 삼가 정사(正使) 보수고(寶須古)·부사(副使) 채경(蔡璟) 등을 보내어 삼가 자문(咨文)과 예물(禮物)을 가지고 <성상의> 앞에 나아가 구하여 청(請)하니, 전과 같이 《대장경(大藏經)》 전부(全部)를 나라에 이르게 하시어 영구히 나라를 진무(鎮撫)하게 하여 주시면 실로 아주 다행하겠습니다. (『세조실록』 권26, 세조7년 12월 2일)[강조 필자]

앞의 <사례 9>와 <사례 10>은 『세조실록』의 기록이다. <사례 9>는 류큐의 사자가 상대국왕의 서계를 가지고 와서 화석(花錫)·소목(蘇木) 각각 1천 근(斛)을 바치면서 대장경을 청했다는 내용이다. <사례 10>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대장경을 청하는 내용이다. 류큐에서 조선을 통해서 불교 대장경을 입수하고자 했던 것은 세조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성종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사례 11>

유구국왕(琉球國王) 상원(尙圓)이 신사랑(新四郎)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는데,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남북(南北) 만리에 바닷길이 험난하여 배로 왕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략)… 우리 나라는 대대로 불교(佛敎)에 정성을 바쳐서 가람(伽藍)을 짓고 금상(金像)을 설치하고 취도(靄徒)를 두어 장엄(莊嚴)과 복혜(福慧)를 오로지 하였으나, 삼보(三寶) 가운데 법보(法寶)를 갖추지 못한 것을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이 때문에 앞서 비로법보(毘盧法寶) 1장(藏)을 구하였더니, 답서에 유시(諭示)하기를 ‘여러 곳에서 구해 갖기 때문에 이미 다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1장을 돌아오는 사신편에 부쳐 주어서 남극(南極)의 불모지(不毛地)가 불화(佛化)에 영구히 젖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하여 면주(綿紬) 5천 필과 면포(綿布) 5천 필을 구하는데, 이는 대개 비로법보전(毘盧法寶殿)을 창건하는 자본입니다. (중략) 끝으로 진중(珍重)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성종실록』 권161, 성종14년 12월 18일)[강조 필자]

앞의 기록들에서 확인한 있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조선과 류큐 사이에는 빈번한 문물교류가 있었다. 특히 다양한 문물교류 중에서도 류큐에서 조선의 대장경을 수입하였다. 류큐 사람들은 조선의 불교문화가 앞서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조선을 통해서 대장경을 비롯한 불교문화를 수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오고에와 조선시대 불교회화의 비교를 위해서는 우선 이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오고에와 조선시대 불교회화 사이에 보이는 유사성의 배경에는

이 시기 빈번하게 행해졌던 양국 사이의 불교문물의 교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4. 오고에(御後繪)와 조선시대 불화의 비교

현재 사진으로 알려진 10장의 오고에는 그 표현 양식이 거의 일정하게 구성되었다. 다음의 <그림 1>에서 <그림 4>까지를 참고하기로 한다.²⁴⁾ 오고에는 전체적으로 그림 중앙에 국왕이 좌정하고, 국왕의 좌우에 대칭적으로 신하들이 시립하고 있으며, 그리고 배경 그림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중앙에 피변관복(皮弁冠服)을 걸친 국왕을 크게 배치하고 그 좌우로 신하들을 작게 그려서 배치하였다.

사토 후미히코는 10장의 오고에에 나타난 회화 양식의 공통적 요소로 ①정면시(frontal view), ②피변관복(皮弁冠服), ③용, ④규(圭), ⑤타일(敷瓦)이라는 5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회화에서 정면시 및 좌우 대칭적인 표현 방법은 신성관(神聖觀)을 강조하기 위한 각도이며, 그려진 인물을 신격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피변관은 오고에에서 국왕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冠) 및 복장을 일컫는다. 피변관은 중국의 황제가 역대 류큐 국왕에게 하사했던 권력자의 상징물이었다.²⁵⁾

그런데 10장의 오고에를 늘어놓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회화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오고에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제1대 상원왕에서 제8대 상풍왕까지의 유형, 둘째 제11대 상정왕부터 제18대 상육왕까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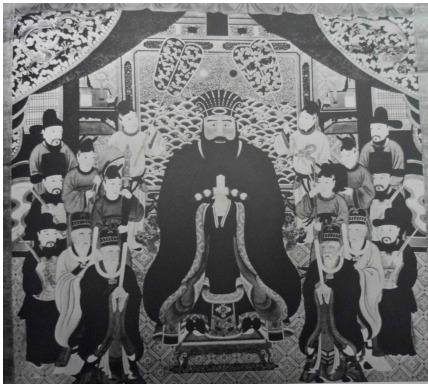
첫째 유형은 중앙에 국왕이 좌정하고 좌우에 8명씩 모두 16명의 신하가 배치되었다. <그림 1>과 <그림 2>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1>은 제1대 상원왕의 오고에이며 <그림 2>는 제3대 상진왕의 오고에이다. 둘째 유형은 역시 중앙에 국왕이 좌정하고 좌우에 7명씩 모두 14명의 신하가 배치되었다.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가 둘째 유형이다. <그림 3>은 제11대 상정왕의 오고에이며 <그림 4>는 제13대 상경왕의 오고에이다.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의 전체적인 구도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두 유형 사이에 보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둘째 유형에 속하는 제11대 상정왕 오고

24) 이 그림들은 모두 鎌倉芳太郎(1982)에 사진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沖繩縣立芸術大學 附屬図書·芸術資料館所藏鎌倉芳太郎資料 <http://www.ken.okigei.ac.jp/kamakura/index>.에 관련 오고에 사진이 전부 수록되어 있어서 쉽게 열람할 수 있다.(열람일 : 2013.11.20)

25) 佐藤文彦, 앞의 책, 71~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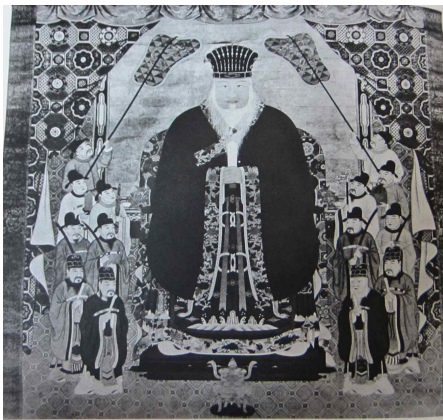
에부터 국왕을 좌우의 신하들과 비교해서 더욱 크게 강조하여 그렸다는 점이 다. 즉 첫째 유형에서도 국왕이 좌우의 신하들에 비해서 크게 그려졌지만 둘째 유형에서는 이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고 둘째 유형에서는 첫째 유형에 보이지 않던 향로가 추가되었다. 그 대신에 첫째 유형에서 확인되던 해와 달 그림이 사라졌다. 첫째 유형에서는 앉아 있는 국왕의 바로 뒤에 세워진 칸막이 가구(衝立)에 일월(日月)의 형상이 그려졌으나 둘째 유형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림 1> 제1대 상원왕의 오고에.
출전:『沖繩文化の遺宝』



<그림 2> 제3대 상진왕의 오고에.
출전:『沖繩文化の遺宝』



<그림 3> 제11대 상정왕의 오고에.
출전:『沖繩文化の遺宝』



<그림 4> 제13대 상경왕의 오고에.
출전:『沖繩文化の遺宝』

사토 후미히코는 오고에에서 확인되는 유형 사이의 차이를 명나라 시대의 국왕상과 청나라 시대의 국왕상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유형이 명나라 국왕상의 유형이며 둘째 유형이 청나라 국왕상이라는 설명이다.²⁶⁾ 이는 오고에를 중국의 왕의 초상화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즉 중국회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성립하였다는 설명이다. 당시 류큐의 화가들이 그림 공부를 위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등,²⁷⁾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고에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국회화의 영향이 반영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토 후미히코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설명은 오고에 중에서도 중앙에 좌정한 국왕을 특히 주목한 결과이다. 이 글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오고에는 전체적으로 국왕, 좌우의 신하들, 그리고 배경 그림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오고에의 성립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고에를 구성하는 전체적 구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라카와 노부유키는 전체 오고에를 구성하는 국왕, 좌우의 신하들, 배경 그림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좌우 대칭으로 늘어선 신하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주목하여 중국 문헌과 대조하였다. 그는 중국의 『明史』卷60 志第40 儀衛 郡王儀仗, 『清史稿』卷105 志第80 輿服4 郡王儀衛 기사에 나오는 의장과 오고에에 그려진 신하들의 의장을 면밀하게 대조하였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의장이 인정되지만 오고에는 독자적인 이론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²⁸⁾ 다시 말하자면 중국회화로부터의 영향이 그다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필자는 오고에의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에 조선시대 불화와의 관련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본고의 제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오키나와에 대장경을 보내는 등, 오키나와의 불교 융성에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원각사라는 불교사원에 안치되었던 오고에의 성립과정에 조선시대 불교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결코 억지스러운 견해가 아니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오고에는 조선시대 불교회화 중에서도 특히 지장탱, 시왕탱 등과 회화의 전체적인 구도에 있어서 유사성이 인정된다. 이제부터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다시 앞의 <그림 1>에서 <그림 4>까지를 주목하기로 한다. <그림 1>에서 <그림 4>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공통점은 이들 그림들이 모두 중앙에 국왕

26) 佐藤文彦, 앞의 책, 75~80쪽.

27) 당시 류큐 화가들의 중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역대 류큐 화가들의 가계도를 분석한 比嘉朝健(1925)를 참조.

28) 平川信幸, 앞의 글, 52~54쪽.

을 크게 그리고 그 좌우에 대칭적으로 신하들을 작게 그렸다는 점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오고에 제작자가 중앙에 좌정한 국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궁리한 결과이다. 앞서 인용한 사토 후미히코의 설명에 의하면 중앙에 그려진 인물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그 인물을 신격화하는 작용을 한다.²⁹⁾ 그런데 이 같은 구도로 제작된 왕의 초상화는 매우 드물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 중국, 일본에 전해지는 국왕의 초상화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구도이다. 국왕의 초상화는 대부분이 국왕을 단독으로 그리거나 주위에 시립하는 신하가 서너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필자가 중국의 『中國帝王圖志』(晉文主編, 2009)에 수록된 역대 중국 국왕의 초상화를 모두 검토해보았지만, 오고에처럼 국왕의 좌우에 많은 신하들을 대칭적으로 배치한 초상화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³⁰⁾

그런데 오고에와 비슷한 회화 구도로 그려진 그림이 한국의 불화에서 확인된다. 특히 조선시대 불화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그림 5>에서 <그림 8>까지의 불화를 주목하기로 한다. <그림 5>와 <그림 6>은 지장보살을 그린 지장탱(地藏幀)이다. 지장탱 중에서도 이른바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유형에 속하는 지장탱이다.³¹⁾ <그림 5>는 1750년에 제작된 지장탱으로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다.³²⁾ <그림 6>은 통도사 명부전에 걸린 지장탱이다.³³⁾ 이 <그림 5>와 <그림 6>을 앞의 <그림 1>에서 <그림 4>까지의 오고에와 비교해 보면 그 회화 구도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고에의 경우에 중앙에 류큐 국왕이 좌정하고 있고, 지장탱의 경우에는 지장보살이 좌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가 매우 유사하다. <그림 5>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5>는 중앙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측에 도명존자(道明尊者)와 시왕 중에서 홀수에 해당하는 진광대왕(1), 송제대왕(3), 염라대왕(5), 태산대왕(7), 도시대왕(9), 판관, 사자, 장군, 동자를 그렸다. 우측에 무독귀왕과 시왕 중에서 짝수에 해당하는 초강대왕(2), 오관대왕(4), 변성대왕(6), 평등대왕(8), 전륜대왕(10), 판관, 사자, 장군, 동자를 그렸다.³⁴⁾

29) 佐藤文彦, 앞의 책, 75쪽.

30) 晉文 主編, 『中國帝王圖志』, 山東畫報出版社, 2009. 이 책에는 중국 선사시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국왕과 관련한 주요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극히 일부 그림에 국왕과 여러 명의 신하들이 함께 등장하지만, 이 그림은 국왕의 초상화가 아니다.

31) 일반적으로 지장탱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1. 지장독존도(地藏獨尊圖), 2. 지장삼존도(地藏三尊圖), 3. 지장삼존신중도(地藏三尊神衆圖), 4.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등이다. 이 중에서 지장시왕도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협시, 시왕, 판관 등이 함께 그려진 지장탱이다.

32)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19, 성보문화재연구원, 1999에 수록.

33)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1, 성보문화재연구원, 1996에 수록.

<그림 5>의 회화 구도는 앞서 검토한 『구양』 권11에 기록된 <사례 5>를 연상케 한다. <사례 5>의 기록에 의하면, 원각사 대전 중앙에 불상을 안치하고 그 좌우의 두 칸에 역대 국왕들의 신주를 안치하였다. 신주의 배열 순서는 왼쪽 칸은 오른쪽을 상위로 삼아서 제1위는 7세 상풍(尙), 제2위는 9세 상질(尙質), 제3위는 11세 상순(尙純)을 모셨다. 오른쪽 칸은 왼쪽을 상위로 삼아서 제1위는 8세 상현(尙賢), 제2위는 10세 상정(尙貞), 제3위는 12세 상익(尙益)을 모셨다. 다시 말하자면 좌우 번갈아가며 홀수와 짝수에 해당하는 역대 국왕의 신주를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그 신주의 배열 방식이 <그림 5>의 배열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볼 때에 <사례 5>에 등장하는 불상은 지장보살에 해당하며 그 주위에 신주가 배치된 류큐의 역대 국왕들은 시왕에 비견되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현재 전하는 오고에의 회화 구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장탱뿐만이 아니라 시왕탱에서도 오고에와 비슷한 회화 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7>과 <그림 8>을 주목하기로 한다. <그림 7>은 통도사의 말사 옥천사(玉泉寺)의 시왕탱 중에서 제3 송제대왕(宋帝大王)의 그림이다.³⁵⁾ <그림 8>은 시왕탱 중에서 제4 오관대왕(五官大王)의 그림으로 18세기에 제작되었다.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다.³⁶⁾ 송제대왕 및 오관대왕의 좌우에 관관, 녹사(綠事), 사자, 동자, 동녀 등을 작게 그려서 배치한 회화 구도가 오고에의 구도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7>과 <그림 8>의 하단부에 그려진 지옥의 광경을 제외한다면, 오고에에서 중앙에 대왕을 강조해서 크게 그리고 좌우에 신하들이 시립한 모습으로 그린 회화 구도와 흡사하다. 이 점으로 미루어볼 때에 오고에의 국왕을 불교의 시왕에 견주어서 그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검토한 지장탱과 원각사 어조당의 신주 배열 방식의 유사성, 시왕탱과 오고에의 회화 구도의 유사성 등으로 볼 때에 오고에가 조선시대의 지장탱 및 시왕탱과 불교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34) 그림에 배치된 신중에 대한 해설은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19, 성보문화재연구원, 1999, 184쪽의 해설에 의한다.

35)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3, 성보문화재연구원, 1996에 수록.

36)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19, 성보문화재연구원, 1999에 수록.



<그림 5> 地藏幀 1750년 건본채색. 홍익대학교 소장



<그림 6> 通度寺 冥府殿 地藏幀 1798년 絹本彩色



<그림 7> 玉泉寺 十王幀 宋帝大王 1744년 絹本彩色



<그림 8> 十王幀 五官大王 18世紀 絹本彩色 弘益大學校 所藏

5. 오고에(御後繪)와 류큐 국왕의 불교적 신격화

지금까지 오키나와의 오고에와 조선시대 불화와의 유사성에 대해서 검토하

였다. 먼저 현재 사진으로 전하는 오고에의 소재 및 그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류큐국 유래기』(1713), 『구양』(1745) 등의 문헌에 기술된 오고에 관련 기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문헌에 ‘尊像’, ‘壽像’, ‘壽影’ 등으로 기록된 역대 류큐왕조 국왕의 초상화가 오늘날의 오고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오고에가 조선시대 불화의 영향으로 성립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조선과 오키나와의 문물교류 특히 그 중에서도 조선에서 류큐로 불교 전파라는 역사적 맥락을 주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장경을 류큐로 전해주는 등, 류큐의 불교 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불교 회화 양식이 류큐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조선시대 불화와 오고에의 텍스트 비교를 통해서 특히 조선시대에 제작된 사찰의 지장탱 및 시왕탱과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로 알려져 있다. 사찰에서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안치한 공간이 다름 아닌 지장전, 명부전, 혹은 시왕전이라고 부르는 전각이다. 지금도 한국의 사찰에 가면 지장전이나 명부전에 지장보살이 안치되어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대개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하여 그 좌우에 시왕이 안치되어 있다. 이는 류큐왕조의 종묘였던 원각사 대전 및 어조당의 신주 배치 방식과 일치한다. 류큐 왕조시대 국왕의 초상화 오고에와 조선시대 불화 중의 지장탱 및 시왕탱과의 사이에 보이는 회화 구도의 유사성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던 셈이다.

류큐왕조 시대에 원각사 어조당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사공간이었다. 이 글의 제2장에서 『구양』 권11의 기록(<사례 4>)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어조당은 당시 류큐왕조의 종묘에 해당되는 공간이었다. 원래 원각사 대전 옆에 결채를 지어서 어조당으로 삼다가, 후에는 원각사 대전 그 자체를 어조당으로 삼았다. 어조당은 국왕의 사후에 신주와 오고에를 걸어놓고 불교식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 다시 말하자면 선왕의 불교적 신격화를 도모하는 공간이었다. 선왕의 불교적 신격화는 왕권의 유지 및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불교적 신격화의 과정에서 불교의 지장탱 및 시왕탱의 회화 양식을 빌려서 오고에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류큐의 국왕을 지장보살이나 시왕에 견주어 표현했던 셈이다. 특히 시왕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진다. 어조당이라는 공간은 불교의 지장전, 명부전, 시왕전에 해당하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류큐왕조에서 역대 선왕들을 지장보살이나 시왕에 버금가는 존재로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오고에의 회화 양식이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오고에가 조선시대 불교회화의 영향으로 성립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성격의 연구이다. 따라서 앞으로 밝혀야 할 연구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첫째 중국의 불교회화에 등장하는 지장보살 및 시왕의 회화 양식에 대한 검토이다. 조선시대의 불화, 중국의 불화, 오키나와의 불화 및 오고에를 나란히 늘어놓고 그 회화적 표현 양식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글의 논지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오고에와 오키나와의 민속신앙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이다. 오키나와 민속신앙의 역사가 오래되고 절대적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오고에의 성립과정에 오키나와의 민속신앙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 민속신앙의 대표적인 성소(聖所)인 우타키와 어조당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겠다.

【參考文獻】

- 성보문화재연구원(1996), 『한국의 불화』1, 성보문화재연구원
성보문화재연구원(1996), 『한국의 불화』3, 성보문화재연구원.
성보문화재연구원(1999), 『한국의 불화』19, 성보문화재연구원.
김정희(2008), 『극락을 꿈꾸다』(보림한국미술관 14 불교회화), 보림출판사.
眞境名安興·島倉龍治(1923), 『沖繩一千年史』, 日本大學.
眞境名安興(1993), 「笑古漫談」『眞境名安興全集』第3卷, 琉球新報社, 197쪽.
比嘉朝健(1925), 「尙侯爵家御後繪に就いて」『遙かなる御後繪』, 作品社, 121쪽.
球陽研究會編(1974), 『球陽』, 角川書店, 107쪽, 257쪽, 264쪽, 271쪽.
鎌倉芳太郎(1982), 『沖繩文化の遺宝』, 岩波書店.
沖繩大百科事典刊行事務局(1983), 『沖繩大百科事典』, 沖繩タイムス社.
外間守善·波照間永吉編(1997), 『琉球國由來記』, 角川書店, 176쪽, 177쪽
平川信幸(2001), 「御後繪とその形式について」『芸術學論叢』14, 別府大學, 48쪽.
佐藤文彦(2003), 『遙かなる御後繪』, 作品社, 10~17쪽, 32~36쪽, 81~83쪽.
新城俊昭(2008), 『琉球·沖繩史-沖繩をよく知るための歴史教科書』, 東洋企畫.
晋文 主編(2009), 『中國帝王圖志』, 山東畫報出版社, 1~670쪽.
『조선왕조실록』 사이트 <http://sillok.history.go.kr>.(열람일 : 2013.11.20)
沖繩縣立芸術大學附屬図書·芸術資料館所藏鎌倉芳太郎資料
<http://www.ken.okigei.ac.jp/kamakura/index>.(열람일 : 2013.11.20)

要旨

沖縄の御後絵と朝鮮時代の仏教絵画の比較

本稿は、朝鮮時代の仏教絵画の影響によって御後絵が成立した可能性について論じたものである。御後絵とは、琉球国王の死後に描かれた肖像画のことである。画面の中央の国王を中心に、左右相称に重臣が配置される。国王の姿は目立つように大きく描かれ、その権威を強調して表現されている。

本稿では御後絵が朝鮮時代の仏教絵画の影響によって成立した可能性について、まず朝鮮時代における朝鮮と琉球の仏教交流から考察した。朝鮮時代には、朝鮮から琉球に大蔵経伝わるなど、様々な交流があったからである。言わば朝鮮と琉球の仏教交流というコンテキストを注目したわけである。次に主に朝鮮時代に描かれた「地藏幀」や「十王幀」を取り上げ、沖縄の御後絵とその様式を比較した。こういう研究によって、二つの結論を導くことができた。その一つは、御後絵と朝鮮時代の「地藏幀」や「十王幀」のあいだには、すこぶる類似性が認め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もう一つは、御後絵が飾られた「御照堂」という祭祀空間は、韓国の仏教寺院における「冥府殿」や「十王殿」に譬えられる空間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つまり琉球王国で、歴代の先王を仏教の「地藏」や「十王」に匹敵するような存在として神格化する過程において御後絵の絵画様式が生まれた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沖縄、御後絵、御照堂、朝鮮の仏教絵画、地藏幀、十王信仰、国王の神格化

투 고 : 2013. 11. 30
1차 심사 : 2013. 12. 14
2차 심사 : 2014. 1. 4